

공공기관 협력펀드 조성 협약 체결

- 중소기업지원 R&D 협력펀드 220억 조성! -

공단은 지난 11일 서울 렉싱턴 호텔에서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을 위한 공공기관 협력펀드 조성 협약식에 참석하여 5개 발전사(한국남동발전 등)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20억 규모의 협력펀드 조성 협약을 체결하였다.

〈기획혁신본부 김형민 기자〉



신안산선 설계VE 약 1468억원 절감효과

- 이용자 편의, 시공방법 개선, 경제적인 설계기준 적용으로 시설규모 최적화 -

공단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VE)를 시행, 지하철 환승 동선 단축으로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는 등 22건의 개선 아이디어 제안으로 약 1468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절감 성과는 ▲국철과 지하철 환승 동선 단축으로 126억원,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외부출입구 계획으로 152억원, ▲가시설 간격 조정 등 시공방법 개선으로 130억원, ▲지하정거장 시공방법 변경(개착공법→굴착공법)으로 38억원, ▲최적의 터널 구조해석 방법 적용으로 58억원, ▲역사내 불필요한 공간을 축소하고, 본선환기구를 정거장내로 통합하여 541억원, ▲열차운영계획을 고려한 선형 계획으로 188억원, ▲신형 전동차 규격을 고려한 터널 단면적 최적화(56m²→51m²)로 235억원 등이다. 공단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에 마무리하고, '13년 착공하여 '18년도에 완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경부고속철도 광역역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단은 그동안의 설계VE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철도시설 규모 최적화를 추진하여 올해 총 58건 2586억원의 예산절감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익산~대야·군장국가산단 노반공사 발주

- 공단, 7월중 4개 공구 총 공사비 6791억원 발주 -

공단은 장항선과 호남·전라선을 연결하는 익산~대야 복선전철사업 1·2공구와 군산항 및 군장국가산업단지의 철도물류 수송체계를 확충하기 위한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사업 1·2공구 등 총 4개 공구로 공사비 6791억원의 노반공사를 7월에 발주하기로 하였다.

공단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지역업체 및 중소기업 참여 입찰자에 대한 가점제, 1개사에 중복낙찰을 허용하지 않는 1사 1공구 낙찰제도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본 공사는 최저가 낙찰제, 물량내역 수정입찰제가 적용되는 사업으로서 입찰금액 및 물량산출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금액단위 : 억원)

| 사업명 | 공구 | 연장 | 추정공사비 | 행정구역 | 비고 |
|-------------|------|--------|-------|---------|-------|
| 익산~대야 복선전철 | 1공구 | 6.2km | 1,481 | 익산시 | 대야신호장 |
| | 2공구 | 8.0km | 1,502 | 군산시 익산시 | |
|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 1공구 | 12.0km | 1,930 | 군산시 익산시 | 단선 |
| | 2공구 | 18.2km | 1,878 | 군산시 | 단선 |
| 계 | 4개공구 | 44.4km | 6,791 | 군산시 익산시 | |



분당선(왕십리~선릉) 종량천 통과터널 '관통'

- 하천구간 저토포(10m) 토사터널 통과로 철도건설 기술력 확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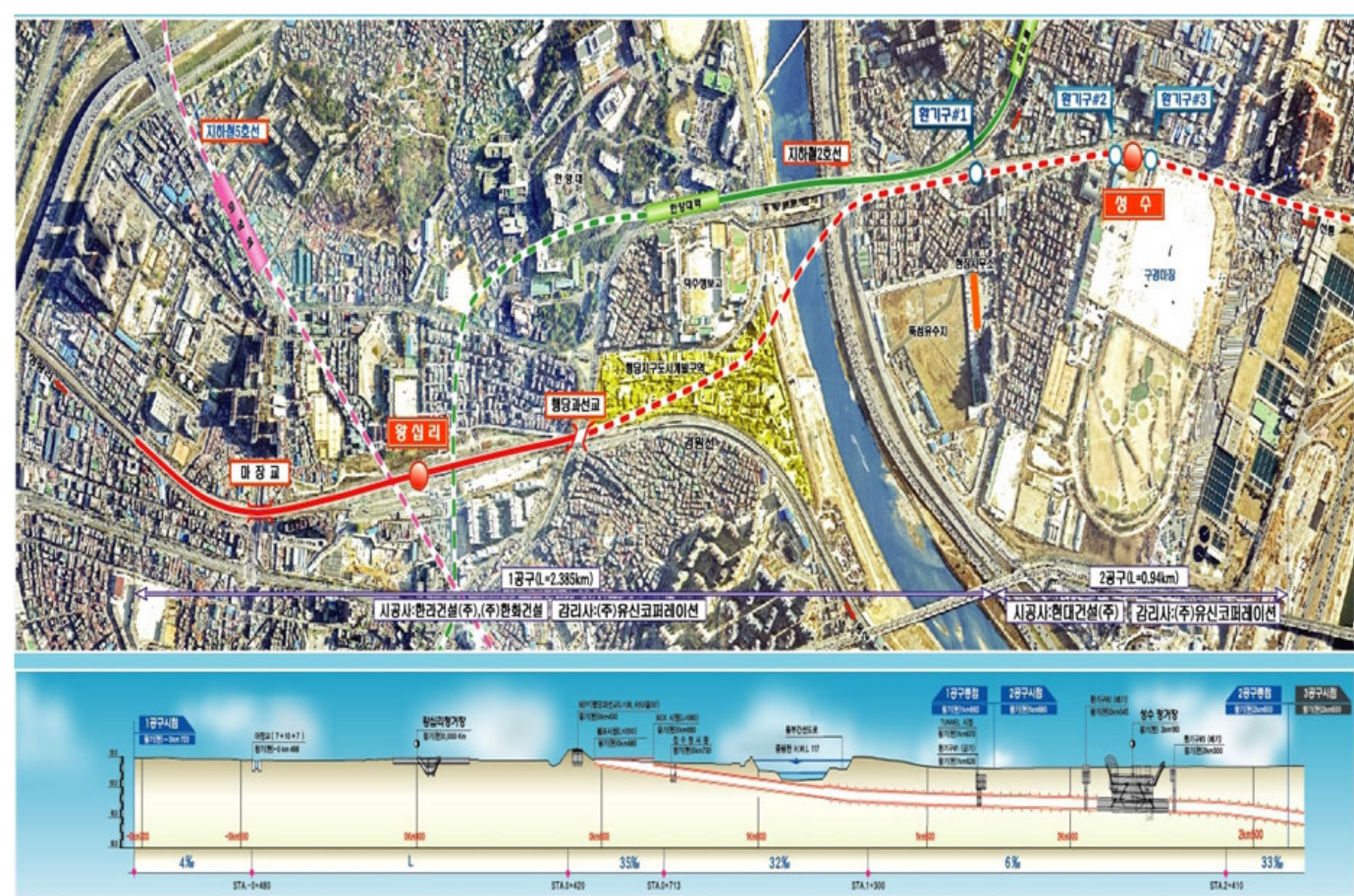
공단은 지난 7월 분당선 왕십리~선릉 복선전철사업 중 가장 취약한 구간인 종량천 통과 토사터널(L=447m) 공사를 3년만에 완료하고, 전구간 구조물 설치공사를 마친으로써 금년 하반기 분당선 개통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분당선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사업 중 종량천 통과 토사터널구간은 모래와 자갈층이 발달된 지반특성과 우기시 종량천이 범람하고, 터널상부에 일일 교통량 32만대의

왕복8차로 동부간선도로가 위치하며, 기존 지하철2호선 교각과 근접 등으로 인해 터널관통에 어려움이 많은 구간이었다.

이같은 열악한 시공조건에서 공단은 감리단, 시공사와 혼연일체가 되어 특수굴착장비를 도입, 저장물이설 및 교통차단 없이 지하수 유출을 차단하는 차수벽체를 단기간에 조성하여 공기민회의 발판을 마련하고, 기존 지하 철교각에 별도의 보호공사를 실시하여 무사고 안전시공을 실현하였다.

공단 관계자는 "분당선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사업은 현재 95%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노반, 궤도, 건축, 전기 등 각 분야의 병행시공으로 종합시운전 등을 거쳐 당초 계획대로 2012년 하반기 개통할 계획"이라며 "도로점용구간의 원상복구를 개통시기보다 앞당겨 완료함으로써 도로 체중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공단, 모바일 웹 기반 민원 서비스 개시

- 모바일 기기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민원 신청·조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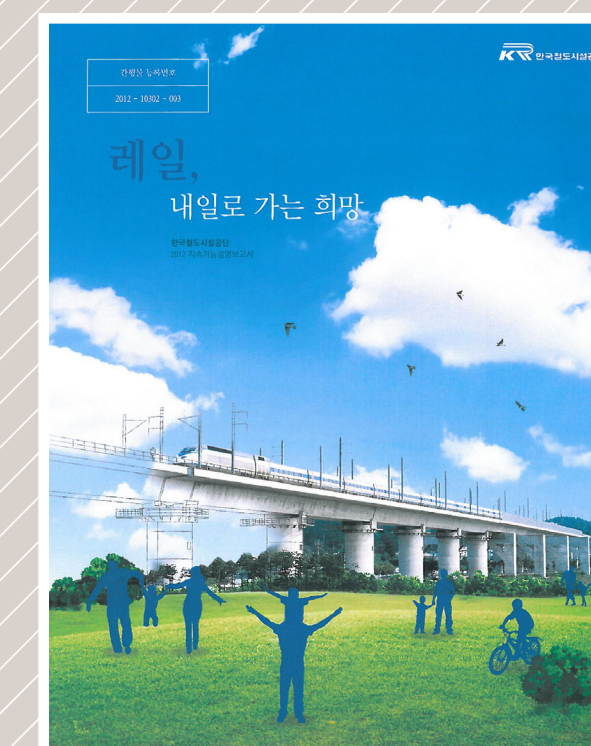
공단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민원신청, 조회와 처리결과 통보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웹을 기반으로 한 민원시스템('KR 모바일 민원서비스')을 구축하고 지난 9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KR 모바일 민원서비스'(minwon.kr.or.kr)가 개통됨에 따라 기존에 전화, 서신, PC 등을 통해 처리하던 민원업무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KR 모바일 민원서비스'는 웹 방식으로 개발되어 어떠한 모바일기기로도 접속이 가능하며 공단은 이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약 5,5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었다.



KR 모바일 민원 서비스 QR 코드



공단, 201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기 위한 경영성과 보고 -

공단은 유엔 글로벌콤팩트 회원으로서 지난 한 해 동안 펼친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지난 13일 발간하였다.

공단은 최근 더욱 복잡해진 국제사회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문제해결에 있어 유엔의 역할과 조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엔 글로벌콤팩트가 지향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10대 원칙과 국제적 기준인 GRI3.1, ISO26000 가이드라인을 금년 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였다.

공단은 이번 보고서에서, 2020년까지 88조원을 투자하여 전 국민 90만대 생활권을 만들고 새로운 생산유발과 고용창출로 공기업으로서의 경제적 책임을 다한다는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였고, 급변하는 국내외 철도산업의 변화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고속철도사업, 일반철도 고속화, 해외철도사업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함으로써 미래철도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철도건설사업 단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

는 '탄소발자국'을 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친환경 설계와 시공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생태계 복원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친환경 휴식공간을 제공한 사례들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개선 등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업무의 특성에 적합한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사례 등을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광재 이사장은 "공단은 금년 보고서의 발간을 계기로 공단은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는 글로벌 철도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이번 보고서를 영문판으로도 발간하여 국내외 550여개 기관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와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소통할 계획이다.

〈기획혁신본부 양희원 기자〉